

협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서 대통령표창 수상



협회는 지난 달 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 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협회 이재웅 부회장이 참석,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난 해소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선도 중소기업 및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협회, 열린우리당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28일 한국기술센터 16층 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권정배 원내대표 등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측에서 천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재형 정책의장, 안병현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벤처기업인으로는 장홍순 회장을 비롯해 변대규, 김형순, 이금룡, 안철수, 이재웅, 박성찬 등 협회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여성벤처기업 협회 이영남 회장과 IT벤처기업연합회 고시연 회장 그리고 벤처캐피탈협회 고정석 부회장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인들은 "금융 지원보다는 벤처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대기업과의 거래관행과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의 구매 시스템 개선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안병엽 제2정조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거래관행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